“법화종 100년 기틀 닦는 80주년 해로”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① 법화종 80년, 새시대 새울림
② 총무원장 관효 스님에 듣다
③ 법화종 이끄는 스님들 만나다
④ 종정 스님께 듣는 법화 지혜
⑤ 사진으로 보는 법화종 발자취

대한불교법화종이 창종 80주년이라는 장엄한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2026년. 지난 수년간의 기나긴 내홍을 종식시키고 종단의 정상화와 도약을 이끌고 있는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만났다.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고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스님의 말씀에는 수행자의 단단함과 행정가로서의 예리한 통찰이 묻어났다. 노덕현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혜관정사 뜰에서 관효 스님이 미소짓고 있다.

Q. 창종 80주년을 맞는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불교법화종이 창종 80주년을 맞기까지 선대 스님들과 종도들이 지켜온 법등이 있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다시 종단을 세워야 했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80주년은 축하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묻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저는 총무원장이나 주지 같은 소임을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단이 어려운 때에 ‘누군가 해야 한다’는 인연이 왔고, 그것은 스승의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종단 일을 맡은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종도들에게 화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종 80주년의 감회도 결국 그 한마디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공심으로 종단의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출가 인연과 스승의 은혜가 오늘의 소임으로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열일곱 살에 출가했습니다. 출가한 뒤 “중이 되었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출가한 지 사흘 만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았습니다. 당시 절에 주지도 없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감원처럼 일을 맡게 되었고, 신도들 앞에서 〈팔상록〉을 읽어드리며 부처님의 일대기를 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때 이미 포교의 씨앗이 제 안에 들어온 셈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뒤에는 해인사로 다시 가서 공부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후 여러 인연을 거쳐 스물여덟 살 무렵 제주에 돌아왔고, 포교당을 짓고 신도들과 함께 법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부친과도 같은 은사 스님이 계셨고, 혜관정사 인연을 열어주신 은사 스님도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노릇을 해보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스승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무원장 소임도 제 개인의 이름을 세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은혜를 종단을 바로 세우는 일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Q. 길었던 내홍이 마무리되고 종단 안정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종단이 어려웠던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화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함께 살아가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 절, 자기 이해관계만 앞세우면 종단은 대중이 아니라 개인전이 됩니다. 종단을 생각하는 애종심보다 개인의 편의와 이익이 앞서면 법도 흐려지고 제도도 흔들립니다.

오랜 갈등 속에서 법적 다툼도 많았고,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사가 끝났다고 마음까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단을 살리는 길은 결국 화합입니다. 다만 그 화합은 좋은 말로 덮어두는 화합이 아니라, 법화경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화합이어야 합니다.

Q. 총무원장으로서 종무행정을 이끌며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 “안정화 핵심은 종단 화합
> 종헌·종법 개정, 정비 원년
> 종단 교육도량 구성 목표
> 스스로 정화, 보살행 구현”



저는 종단 화합의 핵심은 종헌·종법 전면 개정, 정비 원년 종단 교육도량 구성 목표 스스로 정화, 보살행 구현 이라고 봅니다. 종헌·종법을 따르는 승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헌·종법을 전면 수정하고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 개편은 행정 문구를 손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종단이 사회 앞에서도 당당한 종단이 되고, 승려가 출가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법화행자가 가야 할 길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작업입니다. 재정은 어떻게 투명하게 다룰 것인가, 종찰과 공적 자산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육과 수계는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다시 같은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Q. 창종 80주년을 계기로 추진할 핵심 종무 방향은 무엇입니까.

80주년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80주년 이후에도 남을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째는 종헌·종법 전면 정비입니다. 둘째는 안정사를 승려 교육도량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셋째는 종찰과 전통사찰, 주요 사찰을 바탕으로 공적 재산 관리와 재정 투명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넷째는 제주교구를 비롯한 각 교구를 다시 결속시키고, 전국 사찰 순례를 통해 숨어 있는 종도와 인재를 찾는 일입니다.

제가 중점을 둔 것은 공심과 하심입니다. 먼저 듣고, 버티고, 원칙을 세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총무원은 종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도들이 마음 놓고 수행하고 신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중앙이 바로 서려면 교구와 사찰이 살아야 하고, 교구와 사찰이 살려면 총무원이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종무행정은 찾아가는 행정, 도와주는 행정, 공적으로 설명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종헌·종법과 재정, 인사, 교육의 기준이 공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정 이후 종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봅니다.

Q. 종헌·종법 전면 정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하듯, 대한불교법화종 승려라면 대한불교법화종의 종헌·종법을 따르는 승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헌·종법을 전면 수정하고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 개편은 행정 문구를 손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종단이 사회 앞에서도 당당한 종단이 되고, 승려가 출가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법화행자가 가야 할 길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작업입니다. 재정은 어떻게 투명하게 다룰 것인가, 종찰과 공적 자산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육과 수계는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다시 같은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법화종의 미래 100년은 구호로 열리지 않습니다. 제도와 교육과 사람이 함께 서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창종 80주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미래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Q. 종단 재정의 공공성과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단이 안정되려면 재정도 공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종찰이라는 것은 본래 개인이 마음을 내어 종단에 기부한 사찰들입니다. 그런 사찰과 총본산 안정사를 비롯한 공찰을 바탕으로 재단법인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담금도 과거처럼 교구별로 제각각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로 발급되는 계좌로 공식 납부하는 투명하게 받고 다시 각 교구에 배분하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설명할 수 있고 종도들로부터 감시받는 체계가 있어야 재정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종단의 자산을 공적으로 지키는 제도가 마련되면, 불사도 훨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종도들의 마음도 모일 것입니다.

Q. 제주교구 복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제주교구는 현재 25개 사찰을 기반으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큰 사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혜관정사를 비롯해 대원정사처럼 제주 불교사의 인연을 품은 도량들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법화종이 새롭게 결속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제주교구의 스님들은 연로하신 분들도 많지만, 기본과 의식, 수행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이 제주교구를 다시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주교구 복원은 단순히 한 교구를 다시 열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종단이 혼란을 지나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상징입니다.

Q. 전국 13개 교구와 1,000여 사암의 결속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원장이 된 뒤 처음 생각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전국 순례였습니다. 사찰을 보러 다니는 것보다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단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재를 찾아야 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찰도 찾아가야 합니다. 종단이 결속하려면 총무원과 교구가 서로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연락만으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 사찰을 순방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과 공감대를 만들고, 종단을 이끌 인재를 찾고, 어려운 사찰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 100년의 밑돌입니다.

Q. 법화경의 화합 사상과 보살행을 오늘의 종단 운영에 어떻게 구현해야 합니까.

법화경은 화합의 경입니다. 법화행자는 법화경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과 글과 행위로 드러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희입니다. 종단의 좋은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하느냐” 하고 시비하는 마음보다, 부처님 법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힘을 보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경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도 상대를 부처가 될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공경 위에서 원칙을 세울 때 진짜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Q. 법화종 사부대중과 불자,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불자들에게 먼저 자기 마음을 정화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따라 미워하고, 남을 따라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맑히는 것이 불교의 기본입니다.

법화종 종도들에게는 법화경 말씀을 따르는 법화행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묘법을 찾고, 그 마음으로 가정과 사찰과 사회를 맑히는 사람입니다.

창종 80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지난 어려움이 우리 종단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의 법화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법화경의 보살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서 열릴 것입니다.

